

## 9. 병고침과 지배이데올로기 탈출

### A. 군대귀신, 돼지떼 (8:28-34)

#### 1. 본문 읽기

- 만나다(*met, ὑπήντησαν*=> *ὑπαντάω, oppose [in battle]*)=> 왜 이렇게 사납게? 예수가 귀신(돼지=> 로마제국)의 영역에 들어감
- 하나님의 아들 vs. 황제의 아들=> 보다 심층의 근본적인 대립
- 반응. 온 동네가 예수를 만나러 (*εἰς ὑπάντησιν*) 나온다. 대적의 의미. 예수를 불편해 하다=> 떠나시길 간구(8:34). 지배이데올로기와 대립은 항시 불편.

#### 2. 큰 그림, 외부. 로마제국/지배체제의 몰락

- Place name: Gerasa (Mark 5:1)? Gadara (Matt 8:28)? Gergesa (Origen, 185-254)?
- Living among the tombs—social outcasts; outside urban areas but easy access to food/sacramental meals offered to the dead
- Pigs—prohibited/unclean for the Jews (Lev 11:7-8; Deut 14:8);
  - cf. Antiochus Epiphanes; here, a symbol of the Tenth Fretensis Legion stationed in Syria—the Jewish War in 66-70.
  - Echoing the Exodus event (Ex 14:26-31; 15:4-5)

### B. 다시 가버나움(본 동네)로 => 내부 이야기

#### 1. 새로운 공동체(하느님 나라, 천국) 형성

- 중풍병자(9:2-8//막 2:1-12)
  - “죄의 믿음을 보시고” => 그들이 중풍병자를 늘 데리고 다님 (*προσέφερον*=> imperfect tense).
  - 죄사함=> 무슨 죄? (전통적으로 지배자의 눈/소견,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=> 정체성 확립)
  - Divine passive: “your sins are forgiven” (예수는 하느님 뜻의 대행자=> 人子 not 神子). 인자의 죄사함(선포)의 권리=> 당시 제사장의 역할(삼상 1:1; 삼하 12:13).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. 죄(체제와 이데올로기)로부터 벗어날 권리
  - 결과. 중풍병자가 침상에 실려 왔지만, 이제는 침상을 들고 나가다=> 지배체제의 피해자였지만(비관적 운명론) 이제는 주관적 삶을 영위(창조적 능동적)
    - ⇒ 병은 죄의 결과. 고로 원인치료=> 죄 용서. [초점은 병고침이 아닌, 체제와의 대립]
    - ⇒ 9:6 “일어나, 네 상을 가지고(단순과거형, ἐγερθεῖς, ἄρον) 집으로 [항상] 가라”(현재형, ὑπάγε) => 일시적 병고침("기적")이 아닌, 계속된 투쟁(삶의 태도)
- 세리와 죄인(9:9-13//막 2:13-17)
  - 세관의 자리를 떨치고 나와=> 지배체제의 종노릇 청산. => *ἀναστὰς* << *ἀνίστημι, stand up*=> 종종 부활의 용어로 쓰임. 부활(復活)의 의미(다시, 새롭게 살기)
  - 집=> 마태복음 house church?? 밥상공동체=> 식구(family); 지배체제의 자리매김/계급제도 거부
  - 9:13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; Q. "죄인/죄인"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? 지금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까?=> 신학 다시하기(지배체제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함.)
- 금식(9:14-17//막 2:18-22)
  - Mourning and fasting: 전통적 종교의식
  - 진짜 슬퍼할 일은 예수(그의 삶과 가르침)가 사라질 때(taken away—by whom?).
  - 집=> 마태복음 house church?? 밥상공동체=> 식구(family); 지배체제의 자리매김/계급제도 거부

#### 2. 이스라엘/공동체 부활 (9:18-26//막 5:21-43)

- 마가복음 5 장의 구조와 비교. 군대귀신-혈우병. 그 사이에 “본 동네”(가버나움)에서 공동체 형성=>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 역할은 신학의 틀을 짜는 것=> 곧 이스라엘/새로운 공동체 부활. “한 지도자”(마 9:18, ἄρχων εἰς) vs. “한 공회지도자”(막 5:22, εἰς τῶν ἀρχισυναγῶγων)

- 딸=> 시온의 딸(사 1:8; 52:2; 62:11)=>예루살렘/이스라엘의 회복
- 숫자의 의미: 12 해, 12 살 => 12 부족 (이스라엘 민족을 상징)
  - 12 해 동안 혈우병=> "피"는 생명을 상징 (창 9:4-6). 피의 손실 => 생명소실, 죽어감
  - 마찬가지로 12 살 소녀의 죽어감.
-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제국(지배이데올로기) 아래 신음, 죽어감. "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" (9:24)=>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. 아직도 희망/내일이 있다. (누구의 신학/이데올로기를 따를 것인가? =>결단촉구; 갈릴리[예수의 삶의 자리]로 가라 마 26:32; 28:7, 10, 16)
- "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" (마 8:13; 9:22)

C. 소경과 병어리=> 총체적인 병/현상

- 소경.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=> 깨닫지 못함(배우지 못함)
- 병어리. 현실을 (알고도) 말하지 못함. 둘 다 (체제의) 병
- 9:27 따르다(follow, ἀκολουθέω)=> discipleship (cf. 막 10:52 길에서 쫓으니라, ἠκολούθει αὐτῷ ἐν τῇ ὁδῷ.) => 깨닫고 쫓든/따르든가, 따르다가 깨닫는다.

반응 (9:32-34)

- Yes and No! 바리새인(마태복음에서, 지배이데올로기의 시녀)의 상대방 흠집내기. "귀신들린 자" 그러나 그 속 뜻은? 윌터 윈크, *Naming the Power* (Fortress, 1984).
- 예수가 한 '하느님 나라 운동'은 홀로 할 수 없는 일. 공동체 일 (9:35-11:1)=> 다음 시간에...

생각해 보기

- 병고침의 의미. 1) 신적 능력, 역사에 유일한 사건이면, 지금은 효력상실=> 신의 능력 소진(消盡). 2)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폐기해야한다면, 역시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없다. 그러나 3) 지금도 살아있는/영향을 끼친다면(functional/dynamic equivalents), 우리의 말로 재생되어야 함. =>병과 귀신들림 그리고 고침/회복은 제국주의 상황에서 자의식, 신학의 재발견=> 피해 망상에서 벗어남 (왜 그 때에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어야 할까? 지금은 없나?)
- 내가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? 내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?